

# 분재(盆栽)를 보고 즐길 것인가?

'6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귀에 따갑게 들어온 소리가 경제발전이란 단어이다. 원체 못 살아왔으니 잘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이때 잘 산다는 의미는 물질의 풍요를 뜻하였다.

'78년 한국경제의 분수령을 넘으면서 경제발전은 정치발전이란 단어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소위 민주화로 통하는 정치발전은 그간 경제발전에 밀려 유신체제 속에서 생활하던 국민이 정치발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치발전은 지난해 6·29선언을 나오게 만들었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도덕발전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덕성의 결여야 말로 한 사회, 한 국가가 붕괴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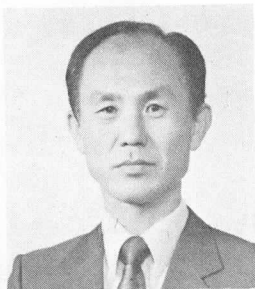
축산업 발전, 양돈업 발전이란 말도 많이 사용된다.

발전(發展)이란 무엇인가? 양돈산업이 어떻게 되어야 발전하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양돈산업은 어떠한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양돈업이 짊어 넘어 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돼지 사육두수가 많아지는 것도 물량면에서의 발전이기는 하지만, '79년 가격폭락을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오히려 생산조절이 잘 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게 되었다. 사료효율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기의 품질에 더욱 힘쓰게 되었고, 최근에는 항생물질 잔류 등 식육의 안정성에 관심이 높아져 양(量)도 중요하지만 고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발전이라고 믿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규모의 문제에서도,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전체적인 면과 농장별 적정규모가 설정되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발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정책입안자와 양돈농가 또는 양돈업자 내에서도 시좌(視座)의 차이 때문에 이견이 있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노 영 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얼마전 협회 사무실에서 가까운 서초 꽃시장에서 분재를 전문으로 하는 회원에 들렀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조그만 분재에는 20년생이란 표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재를 보고 감탄하며 어떻게 이렇게 느티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가지를 철사로 분재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라도록 붙잡아 매었고, 나무가 자라고 싶은 것을 못 자라도록 잘라내어 한이 맺혀 응어리져 있는 나무를 보니 두렵기조차 하였다.

이렇게 철사로 붙잡아 매고 가지와 줄기를 잘라내어 자기 손안에 넣고 즐기는 분재애호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쭉쭉 시원하게 자라고 싶은대로 자라서 많은 과실을 맺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더운 여름 그늘도 제공하고, 탄소동화작용으로 맑은 공기를 공급하며 귀중한 목재를 제공하려는 나무를 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가? 나 혼자 집안에 들여 놓고 즐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양돈업이 근대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

한지도 20여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양돈산업은 무한히 발전하고 싶었다. 더 값싸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동안 배합사료용 곡물의 수입량을 철사로 얽어 매고, 사용비율을 제한하고,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성장을 억제하여 왔었다.

어느 한 쪽 가지가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을 막자고 만들었던 허가제·등록제도는 양돈산업이 자라는데 억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리라고 보여진다.

이제 양돈산업에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의 전지는 필요하겠지만, 양돈산업 자체를 분재로 만들어 몇 사람이 즐겨서는 안되도록 되었다. 가지를 철사로 묶고 비틀면 연약한 나무가지는 어쩔 수 없이 자라지 못하고 만다.

이제는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이 발전이라고 확신한다. \*